코로나19 1년 특집,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1.02.26. _ **Vol.404**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코로나19 1년 특집,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예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진단을 받은 2020년 1월 이후 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정책, 고용, 돌봄, 교육, 문화 등 많은 것이 변화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감염, 신장장애인들의 연이은 사망, 재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으로 정보가 차단된 시청각장애인 등 수많은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난 취약계층, 장애인을 위한 감염병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장애계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오고갔다. 그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가 있는가하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칭찬할 부분과 채찍질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선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01 코로나19 대유행,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

	확진환자	검사중	격리해제	사망
’20.04.28.	10,752	1,654 (격리자)	8,854	244
’21.02.02.	78,850	154,265	68,775	1,435

- 국내 코로나19환자 첫 발생 2020년 1월 20일, 신천지대구교회 신도인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1차 대유행’이 찾아왔음
- 확진자 수가 하루에 수 백명 단위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경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약 8000명으로 늘었음. 각국은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험국으로 분류했음
- ’20년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공식 선언. 당시 110여 개국, 12만여 명이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이었음
- 이에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자 차량에 탑승한 채로 검사를 받는 승차 검진(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신속하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진단키트,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벼운 증상의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K-방역’ 선보임
- 안정된 상황을 유지할 줄로만 알았던 우리나라에도 8월, 2차 유행 위기 시작. 이태원 클럽, 광화문 집회 등으로 감염자는 증폭했음
- 전국 교정시설과 장애인 시설 등의 집단감염이 발발하며 ’20년 11월20일~12월16일에는 하루에 1240명의 확진자가 발생, 총 1만 5111명의 확진자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 시작됨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발표. 국민들의 동참으로 ’21년 2월, 하루 300명~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음
- ’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 부처에 코로나 진단 시약 수출 성과 등 ‘K-방역 우수성’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음
- K-방역 및 한국 의료기술 우수성 홍보 협력 사업의 홍보 다큐멘터리,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비에 총 57억 원 이상 예산을 들이며 박차를 가했음
- ’20년 6월 기준, 코로나19 사태 이후 120개가 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수출을 비롯, 방역 노하우의 공유를 요청해옴
- ’20년 12월 2일 코로나19 대응에 성공적이라는 평가의 ‘K-방역’이 최종국제표준안(FDIS)투표를 전원 찬성으로 통과, 국제표준화 모델로 등록됐음

02 장애인 사각지대, 코로나19 이후 드러나

세계가 인정한 K-방역, 이와 반대되는 ‘K-의료’의 민낯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거나, 중환자가 늘어난다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 ‘K방역’은 성공했지만 ‘K의료’는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학병원 또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기우제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유럽이 환자가 쏟아져 나와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과거 페스트처럼 더 심각한 상황이 왔을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유럽처럼 악화될지 모르고, 코로나19를 넘겨도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의료 강화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준비해야 할 시기다.”

- 데일리메디"K방역 성공했지만 K의료 최하위인 슬픈 현실" 인터뷰 中(20.11.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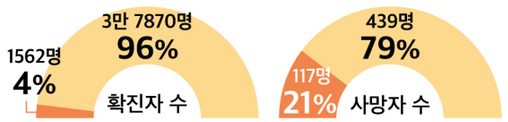
한국장총
www.kodaf.kr

- 현재 국내 공공의료기관이 약 200개 정도 되지만 실제로 병원 역할을 하는 곳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대나 특수목적 공공병원 정도 밖에 없음.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한다고 치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40곳뿐임
- 보건의료정책·의료계 담당자들은 고령자·장애인 중 코로나19 사망자들에게 '기저질환자라서 어찌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 응급의료체계는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부실한 실정임.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중증화를 막아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방의학적 정책 접근은 뒷전인 상태임

비장애인보다 6배 높은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

그래프 코로나19 장애인·비장애인 확진자 현황

(단위: 명, %,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자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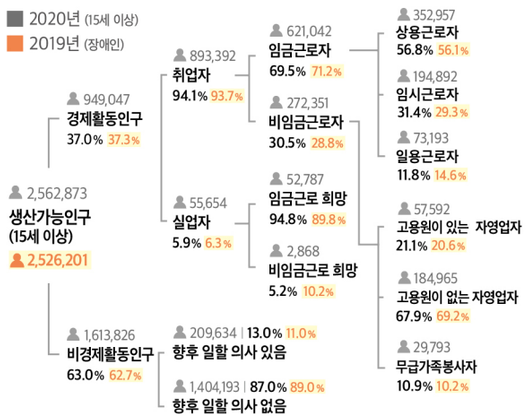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 ⓒ서울신문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현황' 자료(지난해 12월 9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3만 9432명) 중 장애인 비율은 약 4.0%(1562명).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35.7%), 청각장애인(17.2%) 순으로 확진자가 많음
- 코로나19 사망자 556명 중 장애인 사망자는 117명으로 약 21.0%. 우리나라 총인구수 대비 장애인 비율이 약 5.1%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임
- 비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3만 7870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 1.2%인 439명, 장애인 확진자 1562명 중 사망자 비율은 약 7.5%인 117명.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높음
- 시각장애인보다 청각장애인 확진자가 더 많은 이유는 '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에 비해 이동제약은 적음', '코로나19 정보 접근성이 취약해 민감도가 낮음', '시력·청력이 떨어지고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장애 노인"에게 타격이 감'등이 제시됨
- 장애인 확진자·격리자에 대한 대응책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상태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상 부족으로 자택에서 대기하거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이 많음

비장애인 실업률보다 2배이상 높은 장애인 실업률

-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상태는 비장애인의 '실업률'이 2.8%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실업률'이 5.9%로 높았음.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65.8%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고용률'이 48%로 낮은 상태임

가) '비경제활동 장애인' 비율 증가세 치솟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세 이상 인구, 2019년 조사 비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odaf.kr
한국장총
www.kodaf.kr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심각함.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1만 3천826명, 지난해 158만 5천65명보다 2만 8천761명 증가함. 2018~2019년 비활동경제인구가 1만 2천919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음
-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62.2%)로 가장 높았음. 비경제활동인구의 89%는 향후에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가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 조사를 보면 올해 퇴사를 경험한 장애인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4만 1천168명) 가운데 2만118명(48.8%)은 코로나19 확산이 퇴사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음

나) 쥐꼬리보다 더 작아지는 '장애인 임금'

구 분		추정 수	3개월 평균 임금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30,662	263.0
	임시근로자	191,096	92.8
	일용근로자	70,283	129.3
임금근로자 사업체 규모	1~4인	98,580	147.8
	5~49인	305,346	168.9
	50~299인	132,574	216.3
	300인 이상	54,112	346.5
장애인 임금근로자		592,041	192.2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20,446,000	268.1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전체인구 비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임금근로자 62만 1042명 중 21.7%인 13만 4717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나 직장에 영향이 있었다고 답함. 특히 최근 3개월 월평균('21년 2월 기준) 임금은 192.2만원으로 전년 대비 4.9만원이 감소했음. 전체인구(268.1만원)에 비해 75.9만원이 낮았음. 비장애인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344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편임
- 상용직(18.7%)보다 임시(25.5%), 일용직(25.9%)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받았음. 일용직 19.2%가 업무량 감소, 임금 삭감, 임금 체불 등 '업무 및 임금 변화'를 겪은 비율이 높았음

다) 사업체 45%가 사업운영이 불안한 상태

표 장애인 임금노동자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 정도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변화없음	362,590	58.4%	66.6%	51.3%	37.3%
다소 불안해짐	146,087	23.5%	19.9%	23.9%	40.1%
매우 불안해짐	57,095	9.2%	7.2%	9.8%	17.1%
불안해졌다가 회복함	55,270	8.9%	6.3%	14.9%	5.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 이로 인해 전체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체 운영자 중 평균 45%가 코로나19로 고용안정과 사업 운영에 '불안한 상태'임
- 보호고용시장의 장애인 노동자는 보호작업장 폐쇄로 실직 또는 소득 감소를 겪고 있음
- 최종 정리하자면, 장애인 10명 중 3~4명이 일하는 중임. 그중에서 2명 정규직이고 1명은 비정규직, 월급은 최저임금 이하이며 임금이 더 내려가고 있음 나머지 장애인 6~7명 중 6명은 일할 의사가 없음
- 노동과 임금은 매우 중요한 생계수단임에도 실업 등의 어려움이 장애인의 삶을 사지로 내몰고 있음

돌봄 공백에 처한 장애인, 오롯이 가족들의 부담으로

가) 발달장애인 가정 내 어두운 막을 내리는 사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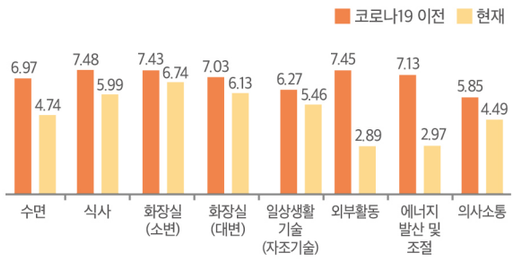


한국장총 KOR www.kodaf.kr

"유리창, 문, 형광등, 가구, 가전제품 등 모두 다 집어던져서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루에 2~3번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자해행위를 합니다. 유리창에 머리를 박다가 얼굴이나 몸에 자상을 많이 입고, 엄마나 나도 몸에 깨물리거나 얻어맞은 상처가 많습니다. 저의 가족은 매일을 이렇게 지옥같이 보내고 있는데, 왜 국가는 대체 도움이 절실한 발달장애 가족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인가요"

- 중증발달장애인 돌봄의 어려움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2020.08.25.) -

- '20년 4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이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한 응답은 87%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외부활동이 제약되어 에너지 발산 및 조절이 어렵고, 수면, 식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코로나19이후 발달장애인의 생활패턴 변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 발달장애인 가정 내 돌봄 가중 문제로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함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돌봄도 30%이하로 제한돼 활동지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집에 발달장애 자녀를 혼자 놔두고 부모님이 직장에 가시고, 직장 다니는 동생이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점심 식사를 주고 가고... 코로나 시기라도 한시적으로 활동보조 시간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 연합뉴스 "발달장애인 가족에 더 가혹한 코로나.. 한계 몰려 극단선택 속출" 인터뷰 中(20.12.25.) -

- 2020년 3월, 제주 서귀포에서 발달장애 아들과 어머니가 주차된 차량에서 함께 숨진 채 발견됨. 6월 광주에서 발달장애 아들을 홀로 돌보는 데 한계를 느낀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차 안에서 생을 마감함, 12월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서 모친이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되었고 그동안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전기가 끊기자 노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사건 등이 있음

나) '긴급돌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 등이 있어도 체감 못해

- 코로나19 이후 2020년 정부의 대책으로는 '긴급돌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급여' 등이 있음
- 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의 이용률은 거의 없었음. '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을 조사한 결과, 발달장애인 부모 1,174명 중 60.3%는 학교에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이용 기회조차 없었음. 2명 중 1명은 특별급여 자체를 몰랐음
-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구 넷 중 한 가구(20.5%)에서 부모 중 1명 이상이 직장을 그만 둠. 감염 공포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만큼은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큼. 하지만 코로19 이후 약 10% 정도 이용 감소함

www.kodaf.kr
한국장총 KOR www.kodaf.kr

'코호트 격리' 무늬만 확산방지 조치

- 코호트 격리, '감염 질환 등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를 뜻함.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시설 내 있는 모든 사람(비확진자 포함)과 함께 봉쇄함

가) 코호트 시설, 바이러스 배양을 최적화시키는 곳

"누워만 계셨던 어머니는 코로나19에 걸려 방치됐다. 노인들은 손 한번 쓰지도 못하게 코호트 격리로 방치한 채 장비와 치료약도 전해주지 않은 채 갇혀서 돌아가셨다"

- 국민청원 게시판 -

"코호트 격리로 총 41명이 시설에 갇혔고, 해당 시설에는 한 방에 3~4명이 생활하고 있다. 1인 1실은 커녕 밀집도는 더 높아졌다"

- 경향신문 "부작용 뻔했던 코호트 격리, 그런데 왜?"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 인터뷰 中(21.01.09.) -

- 코호트 격리 후 A 병원은 17명, B 병원은 39명, C 병원은 28명 등이 사망하였고 이외에도 타요양병원에서의 사망자는 속출함
- 10월 24일, 장애인거주시설 라파엘의집에서 중증 장애인 입소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즉각 코호트 격리'조치, 이후 29일 총 3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음
-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원에서 2명이 확진된 지(12월 25일) 나흘 만에 확진자가 60명으로 불어났고 시설은 코호트 격리됨. 하지만 여전히 한방에 여러 명이 생활하고 있었고, 결국 1월 12일 기준 장애인 거주인 114명 중 56명, 종사자 69명 중 20명으로 총 7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음

나) 올바른 코호트는 확진자만 모아두는 것

"코호트는 동일집단을 모아두는 것이다. 가령 경증 확진자들이 가는 생활치료센터가 코호트에 가깝다. 최근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 접촉자, 비확진자가 한 곳에 있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 받으면서 중증으로 넘어가고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건 코호트가 아니다. 코호트라는 이름하에 건물을 봉쇄한 것이다."

- 경향신문 "부작용 뻔했던 코호트 격리, 그런데 왜?" 호흡기내과 전문 인터뷰中(21.01.09.) -

- 입소자 중 확진환자 발생률을 보면 14%에서 어느 시설에서는 100%가 확진된 사례들도 있음. 방역당국은 한번 시설 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이후에는 전파의 위험은 굉장히 높다는 판단 내림
- 장애계는 "환기나 위생관리조차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코호트 격리 조치는 '보건적 조치'가 아닌 '집단 살해'나 다름없다"고 지적함

비대면 사회, 시각·청각장애인에게는 세상과의 단절

가) 방역과 비대면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의 고립'

- 전국 시각장애인 25만여 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과 비대면화에 따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림
- 건물에 들어가면 QR코드 인증 또는 출입명부 작성이 일상이 된 현재, 시각장애인에겐 여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인증을 못하여 출입이 거부됨
- '20년 7월 10일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힘
- 방역을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에 붙어있는 항균 필름이 점자를 읽을 수 없게 막음

한국장총 KOR www.kodaf.kr

- 간단한 식자재 구매를 위한 대형할인점은 감염 우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스크린 리더'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해야 함
- 하지만 CJ제일제당, 오뚜기만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인증을 받았을 뿐, 이외의 온라인몰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현재 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한 군데도 없음. 이러한 인증없는 사이트 이용 시 시각장애인이 읽을 땐 상품명이 아닌 "제품, 제품, 제품"이라는 음성만 나오므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임

나) 접근성 떨어진 비대면 수업, 시각·청각장애인 성적을 낭떠러지로

- 건국대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인 A(22)씨는 지난 학기에 듣고 싶었던 강의가 있었지만 녹화 수업으로 진행되는 탓에 수강을 포기함. 홈페이지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대체 텍스트가 입력되지 않아 혼자 강의를 재생할 방법이 없는 상태임. 오프라인 강의는 면대면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으나 온라인 수업은 도우미와의 소통도 제한적임
- 또한 학교 공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누락되어있는 대체 텍스트들로 인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 대학 강의 재생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워 출석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강의가 올라온 지 일주일 뒤에 음성파일을 받아 학습하므로 시험 성적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등의 다양한 불상사가 있음
-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자립 방안인 안마업 매출은 70% 이상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줄어 일상생활이 어려움
- 정부재난지원금 등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장애인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부터 장벽이 많음
- 온라인 강의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도 특히 큰 어려움이 있음. 대학은 비용을 이유로 수어통역이나 자막 등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음
- '20년 10월 교육부가 '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계획'으로 원격수업 자막, 수어, 점자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나 EBS(한국교육방송공사)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자막서비스가 줄어 청각장애인 학생들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대상	서비스	콘텐츠 제공 여부				
		초등 교육	중학 교육	고등 교육	평생 교육	직업/ 자격증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	○	○	○	X
청각장애인	자막	○	○	○	○	○
	수어	X	X	X	○	X
발달장애인	영상설명	X	X	X	○	X

장애인 인터넷 지원서비스 대상 및 범위 ©김상희 부의장실

- 수어서비스는 평생교육 외에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음. 자막 및 수어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강사의 입 모양을 읽으며 강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수업 종료 후 속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등 학습에 어려움이 많음

다) 코로나19 출범 후 대면과 비대면의 소통 모두 어려워진 청각장애인

-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 수는 37만 7천명, 얼굴표정이 의사소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마네킹과 대화를 하는 것 같다고 함



립뷰마스크를 착용한 광희 ©유튜브 채널 '네고왕'

www.kodaf.kr
한국장총 KOR www.kodaf.kr

- 잘 안 알려져 있던 청각장애인을 위한 마스크가 '21년 2월 기준 113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의 '네고왕'에 광희가 쓰고 나온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됐음
- 해당 마스크는 하늘샘치료교육센터에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해 낸 립뷰 마스크(Lip-view Mask)임
- 하지만 대부분이 재미를 위한 소품으로 쓰인 걸로 인지하기도 함, 학급에서는 아이들이 '똥꼬 마스크'라고도 언급하며 놀리는 등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
- 질병관리본부의 1339 상담서비스, 긴급생계자금지원 등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안내가 없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음. 3월부터 영상전화기로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연계 상담, 1:1 카카오톡 문자 상담지원, 129 보건복지콜센터 영상 수어 상담 연계 등을 통해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했음

신장장애인, 자가격리자 = 예비 사망자 ?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에 비해 지원체계는 여전히 밑바닥임
- 투석병원 및 의료진 수급부족, 신장장애인 응급이동지원서비스 체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음
- 신장장애인 A 씨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후 여러 투석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부 거절당해 결국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해외 거주자 B 씨가 한국에 입국 후 투석병원을 찾아보았으나 관할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병원은 개인이 찾아야 하다는 이야기만 반복, 00의료원에서 협의해 투석병원은 확보했으나 이동수단이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인 사건 등이 신장장애인이 처한 문제점을 보여줌

03 국내외 대책마련 목소리, 정부의 대응

줄기차게 요구한 수어통역 확대, 빛을 발하다

-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농인의 고유의 언어로 인정받게 됨
- 2019년 7월 지상파(MBC, KBS, SBS)와 종편(JTBC, TV조선, YTN) 등에서는 스마트 수어 방송 상용화 시작함
- 2020년 2월 장애계는 코로나19 정부 브리핑 수어통역 미제공에 차별진정을 냄. 이후 정부 브리핑과 8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수어통역사 배치함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기자회견 수어통역 제공(8월10일) ©연합뉴스

- 2020년 8월 미국농아인협회와 소속 농인의 워싱턴 DC 법원에 '코로나19 수어통역 미제공' 고소장 제출, 9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백악관의 코로나19 브리핑에 미국수어 통역 제공 결정함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는 PC와 모바일 환경이 발달한 지금에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정보접근성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인권과도 연결된다"

- 한국농아인협회장 변승일, 메인뉴스 수어통역 환영 성명서 中 -

KOR 한국장총
www.kodaf.kr

"많은 농인 분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언어인 수어가 나오는 것을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화면 하단) 작은 창 속을 통해서 수어 통역을 보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크게 볼 수 있어서 시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코로나 브리핑뿐만 아니라 공공 민간 전 영역에서 작은 통역 창이 아닌 '큰 화면'으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많이 들었어요."

- BBC뉴스 "코로나19: '수어통역사'가 알려주는 코로나19 브리핑 뒷이야기" 통역사 인터뷰 中(20.09.18.) -

- 농아인들의 정보접근과 방송시청 권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한국농아인협회를 비롯한 장애계가 '수어통역확대'를 수없이 요구해옴
- 마침내, 2020년 9월 KBS·MBC·SBS 지상파 메인뉴스에 수어통역 지원 시작함
- 2020년 9월 국회 상임위 회의 및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 의무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됨
- 기자회견장, 청와대 주요연설 중계,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영상 등에서 농인의 실질적 정보 보장을 위한 수어통역 제공 과제가 남음

국내 첫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죽음을 멈출 수 있을까

가) 현황 및 문제점

"마스크를 꼭 끼고 다녀야 한다거나, 본인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알아 들을 수 있을 언어로 해줘야 하는데 부족한 상황이라 엄마들도 난감하고 당사자도 힘이 드는데…"

- TBS뉴스, "장애유형별 '감염병 매뉴얼'제작… 장애유형별로 알기 쉽게" 인터뷰 中(20.08.13.) -

-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 유행이 계속 있어왔음. 하지만 장애인이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과 감독·관리자의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상태. 장애계는 보건복지부에 끊임없이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매뉴얼 제작을 요구해왔음
- 발달·시각·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코로나19대응에 대한 그림·해설자막 필요, 보행 장애의 경우에는 자택과 의료기관 간의 이동지원 이용을 위한 매뉴얼, 시설 이용자들에게는 시설 폐쇄 시의 매뉴얼 등 여러 유형과 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 제작이 필요했음
- 또한 매뉴얼 제작 후 장애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이 필요했음

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구체성 부족해

구분	주요대상	고려사항 및 코로나19 지원사례	
의사소통 제약	시각,청각, 언어, 발달(지적, 자폐성) 장애	①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 수어통역 및 해설화면 제공 · 영상수어상담 · 1339 24시간 문자상담 · QR코드 등 음성변환 출력 인쇄물 배포 · 선별검사소에서 그림 설명판 제공
이동 제약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인	② 이동서비스 지원	· 자택-의료기관(선별진료소)-격리장소 간 이동지원 - 휠체어탑승 가능차량(특장차) 우선 이용 -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이송 지원 - 시각장애인 보호자 동행 · 자가격리대상 생필품, 방역물품 지원
감염 취약	내부장기의 장애 및 중증 장애	③ 감염 예방 관리 및 필수 의료지원 강화	·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은 확진시 병원 우선 격리 · 전화 진료·처방, 대리인 처방약 수령 등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 공적마스크 범위 제한없이 대리 구매 허용 · 장애인마스크 무상보급사업 정부 조달구매대행 지원
밀접 돌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	④ 돌봄 공백 방지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 추가급여 제공, 서비스 제공 인력 풀 확대 · 이용시설폐쇄(중단)이나 보호자 부재시 가족돌봄, 긴급돌봄 실시 · 돌봄 및 이용서비스 단절 등에 따른 가정생활 지원 마련 시행
집단 활동	주거시설, 복지관 등 시설 이용 장애인	⑤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 철저한 감염예방 조치 · 대체인력 우선투입,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장애인 생활시설 폐쇄시 임시시설, 주변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과 지역 대응체계 마련 * 장애인 시설별 대응지침 기시행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감염병 대응 메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힘(6월23일) ⓒ보건복지부

www.kodaf.kr
KOR 한국장총
www.kodaf.kr

- 서울시는 장애인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9월부터 12월까지 제작한다고 8월 14일 밝힘
- 매뉴얼 10종과 동영상 23종을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과 함께 제작, 모두가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복지포털과 SNS 등 온라인으로 홍보한다고 계획, '21년 1월 13일 책자 제작 후 게시함
- 감염병 대응책이라고 하기엔 1년이 지나고 백신이 나온 시점에 나온 것이라 늦깎이 대응이라는 평판임. 어떤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와있지만, 책임주체와 예산 수반에 대한 내용이 매뉴얼에 없음. 권고하는 수준의 매뉴얼이며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 여력에 맞게 하도록 함. 또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것부터 '어디에서', '얼마를' 들여 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다) 해외 장애인 감염병 관리 매뉴얼, 감독체계부터 명확

- [1]미국의 감염병 관리 매뉴얼은 감독기관 CM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규정을 중심으로 시설의 감염관리 기준이 제시함. 독일과 호주는 감염관리 규정과 전문가 권고에 기반, 영국과 캐나다는 평가와 연계하여 감염관리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가 제시되어 있음
- 매뉴얼에는 감염관리 기본계획, 감시 프로그램, 감염관리자 지정, 감염교육, 구성원 간 협력체계, 외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감염병 예방활동 조치방법 등 매우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특히 미국과 캐나다는 정부 주도하에 장애인 감염관리 홈페이지를 별도 제작, 기본 매뉴얼 외에 감염관리 영역별, 감염병 종류별 온라인 매뉴얼과 관련 자료를 상시 탑재하여 감염관리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감염관리 감독 주체에 있어서부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지 못함
- 시설 감염관리 인프라, 구성원 역량 증진과 같은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남음

사각지대 메꿔나가야 할 신년 정부정책의 발표

- '20년(3조 2637억원) 대비 '21년(4147억원)으로 12.7% 예산 증액됨
- 보건복지부가 '21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를 위한 국립재활원 장애인전담병상 10개 병상을 운영,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가) 서비스 공백 채우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재난 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음
- 재난 상황에서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족 활동지원 대책 마련, 위급 상황 시 공공병원 입원 및 병원에 대한 생활 지원, 의사소통 등 대응 매뉴얼 구축이 필요함

2) 정부의 서비스 강화 대책 발표

-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 비수급자의 경우도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준해 긴급활동지원을 제공,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입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배치·돌봄을 지원 계획 발표함

1 2020상반기 KoDDISSUE (2020,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총 www.kodaf.kr

- 서비스 단가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확대, 대상자는 9만 1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확대함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자와 급여를 각각 3000명(작년 2000명). 단가 1500원(작년 1000원)으로 늘림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키로 결정함

나) 고위험군 신장장애인, 감염병 대응책 마련[2]

1) 현황 및 문제점

-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신장장애(투석, 신장이식)에 대한 고위험군 분류 및 명시가 필요하며, 마스크 우선지원, 신장장애인 자가 격리 병원 마련,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신장장애인 전담 병상 확보 발표

- '코로나19 장애인확진자 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혈액투석 신장장애인을 위해 인공신장실 또는 이동형 투석장치를 보유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상을 확보해 확진자가 진료 거부 없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임

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상 및 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재난 상황 시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족 돌봄 책임 전가는 2차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음
-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긴급 돌봄 서비스 체계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위급 상황 시 대리인의 신경정신과 약 처방 허용, 감염병 사태 시 온라인 강의 및 원격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구축 등 대책이 필요함

2) 서비스 지원대상자, 돌봄 등 확대 발표

-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확대함
-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함. 주간활동은 4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방과 후 활동은 기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가산급여 3000원 추가 지급함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기존 8개소에서 2개소 추가 지정해 총 10개소로 늘림.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운영을 통한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 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임

코로나 백신접종 대상군별 구분 계획 수립

- 대상군별 접종 시작 시기(안) '21년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전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계획을 밝혔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0만명	900만명	3325만명	
가군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이소자, 종사자	- 노인재가 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 성인만성 질환자 - 성인 50~64세	
나군	- 코로나19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종사자 - 고위험 의료기관종사자(보건의료인) - 1차 대응요원(역학조사·구급대 등)	- 65세 이상(고령자부터 순차 접종) - 의료기관 및 약국종사자(보건의료인)(1분기접종 대상 外)	- 군인, 경찰, 소방 및 사회기반시설 종사자	- 2차 접종자 미접종자 또는 재접종자(항체유지기간 고려)
다군	-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입소자·종사자	- 장애인·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종사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 성인 18~49세	

※ 백신 공급 물량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질병관리청 제공

2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개선 방안

www.koda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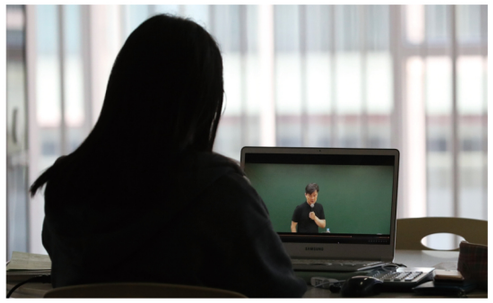
한국장총 www.kodaf.kr

- 2월 중(1분기) 코로나19 전담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종사자부터 접종 우선권을 가짐
- 2분기 65세 이상 국민, 장애인 거주·이용 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 시행할 예정임
- 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할 예정임
- 예방접종기관은 백신 종류에 따라 약 250개의 예방접종센터와 약 1만개의 위탁의료기관으로 구분되어 시행됨.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고 밝힘
- 장애인은 2분기 접종 대상자이지만, 장애인 거주·이용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국한됨

시·청각, 발달장애인의 원격수업 지원 확보

가) 현황 및 문제점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학교교육을 온라인(원격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시·청각, 발달장애 학생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가 속출함. 온라인 강좌에 수어통역, 편의지원서비스 제공 지침 및 별도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대학생 ©News1

3 교육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2020.12.03, 교육부)

나) '20년 교육부의 활동[3]과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20년 4월 6일, 특수교사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 자막을 삽입한 EBS 방송,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자점자 파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습자료와 관련영상 링크 등을 제공함
- 교육부가 온라인수업에 지원을 해주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 등 현실적 한계가 많음. 비장애학생의 대학 입시 일정에 맞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은 없이 개학 강행함
- 2021년 장애 학생 교육 지원 사업 133억원 예산 편성. '19년 104억원, '20년 109억원 대비, '21년도 예산증액 24억원에 이름
-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기반 조성,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 대학생 원격수업 및 진로·취업 지원 등의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학습자료와 교육자료 콘텐츠를 확충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함

04 정부의 대책방안, 남겨진 과제와 개선방향

시설 입소자 외 특히 중증장애인은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 ©소셜포커스

-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은 1월 21일 '코로나 시대, 장애인 감염병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를 주최함. "장애와 면역 저하 상관성 높아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 "장애인은 가족과 활동보조인 등 외부 활동자와의 접촉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만약 모든 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의견들이 나옴
- 따라서 시설 종사자만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한 것이 아닌 '장애인'에게 위험한 상황이므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함

표 장애인의 경우 우선접종 순위 선정

장애 유형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합계	585,734	399,669	985,403	927,472	706,043	1,633,515	1,513,206	1,105,712	2,618,918
지체	158,257	8[3]24	240,78	549,989	43[6]65	982,354	708,246	514,889	1,223,135
시각	24,643	23,977	48,620	125,618	78,817	204,435	150,261	102,794	253,055
청각	50,462	44,273	94,735	148,612	133,747	282,359	199,074	178,020	377,094
언어	7,851	[2]3,098	10,949	7,512	[5]3,024	10,536	15,363	6,122	21,485
지적	128,332	84,604	212,936	0	0	0	128,332	84,604	212,936
뇌병변	84,042	7[1]50	155,292	60,575	3[4]321	96,896	144,617	107,571	252,188
자폐성	24,234	[2]4,444	28,678	0	[5]0	0	24,234	4,444	28,678
정신	52,658	50,322	102,980	0	0	0	52,658	50,322	102,980
신장	40,864	28,513	69,377	13,479	9,552	23,031	54,343	38,065	92,408
심장	2,675	1[3]89	4,264	693	4[6]09	1,002	3,368	1,898	5,266
호흡기	8,381	2,881	11,262	161	99	260	8,542	2,980	11,522
간	630	233	863	8,679	3,612	12,291	9,309	3,845	13,154
안면	820	595	1,415	739	519	1,258	1,559	1,114	2,673
장루, 요루	891	[3]550	1,441	8,554	[6]5,295	13,849	9,445	5,845	15,290
뇌전증	994	816	1,810	2861	2,383	5,244	3,855	3,199	7,054

배하석 교수의 장애인 우선접종 순위 표 ©소셜포커스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015.12.29. 이하 장애인건강권법)후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됨. 하지만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 추진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도 더딘 상태임
-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드러난 장애인 병·의료지원 이용 열악성은 일상 및 재난 속 의료접근성 문제를 더욱 부각시킴. 지속적인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활동이 요구됨
- 건강주치의 제도 보완(지불방식, 참여주체 및 방식 확대), 건강검진기관 이용 및 지정 확대, 재활운동 및 체육 시행계획 수립 등의 장애인 건강권법 관련 제도 정착이 필요함
- 신장장애인 이동대책 마련과 더불어 여성장애인 친화산부인과, 구강진료센터 확대 등의 병의원 이용 접근성(시설·장비·인력 등 편의지원, 이동지원) 향상 과제가 남음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한국장총, 2020.10.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 '20년 6월 발표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코로나19를 중심으로)'와 제작진행 중인 장애인이 참여하는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의 내용에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병원 격리 등 우선조치를 취하고 생활지원 병원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음
- 하지만 장애인 확진자에게 활동·생활지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 책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음,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자가격리가 아닌 확진된 장애인에 대한 조치가 충분치 않음

- 더군다나 장애인 확진자의 상황을 되짚어 볼 때,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의 구체적인 매뉴얼과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강령지침을 추가해 앞으로의 감염바이러스 확진자의 사망률을 줄여나가도록 해야함
- 또한 유튜브 채널 '서울특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매뉴얼 동영상 23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대응 매뉴얼을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직접 들어가 본 결과, SNS 온라인 홍보는 유튜브와 홈페이지 외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음. 유튜브 영상에서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영상들이 존재했지만 분산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려웠음. 따라서 장애인들이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확산에 힘을 가해야 함

국내 첫 '긴급분산조치', 매뉴얼과 거주공간 마련해야..

- 117명 장애인 거주인 중 70명 집단감염이 일어난 송파구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이하 신아원) 입주자 모두 긴급분산조치 시켰지만 사흘만에 다시 신아원으로 입소시킴. 재입소시킨 이유는 신아원의 방역과 소독이 끝났고, 임시거주공간 마련이 어렵기 때문임
- 서울시와 송파구, 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임. 코로나19 감염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책임을 맡아서 대책을 세워야 함
- 장애계는 오랫동안 요구해온 '탈시설화'를 비롯해 신아원 거주인들의 분산조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
- 장애인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동일집단 격리(코호트격리)가 아닌 분산 후 개별화된 치료·자가격리 지원서비스 제공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긴급분산조치 매뉴얼과 거주공간 및 인력풀이 마련되어야 함



서울시청 앞 신아원 천막농성 정리 기자회견 ©비마이너

'구독자 의견' 보내고 선물 받자!

정책리포트 구독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나, 희망하는 주제를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더욱 개선된 정책리포트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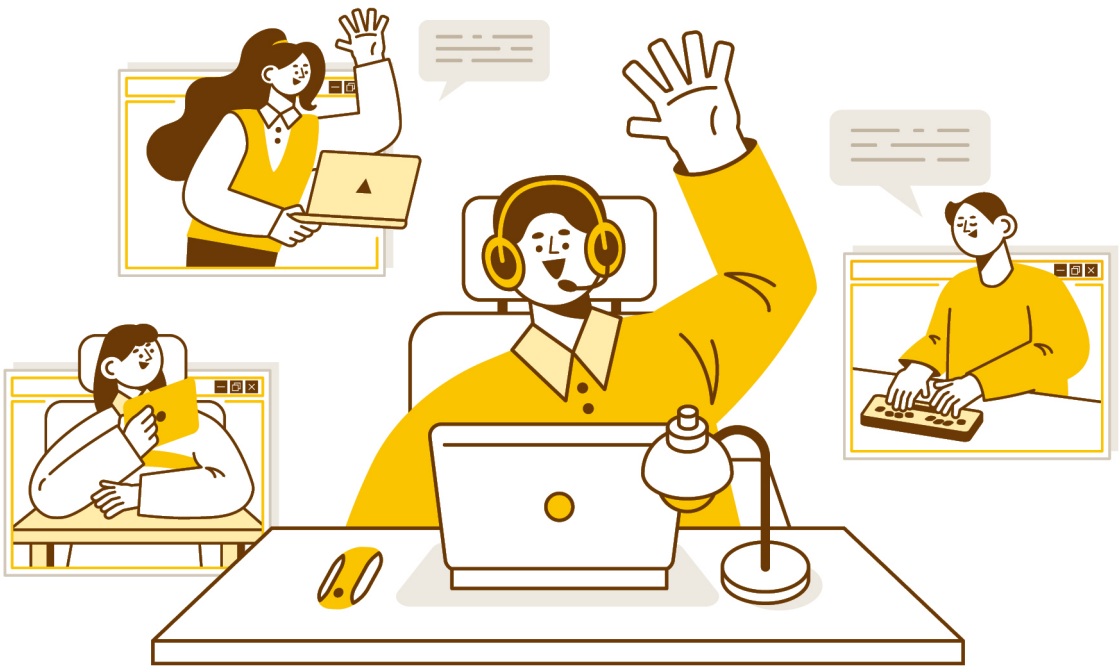
참여방법 QR코드 촬영 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1년 2월 26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KB 국민은행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하는

신입 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

"노트북 받고, 꿈을 타이핑하자!"

신입장애대학생을 KB국민은행이 응원합니다

- **지원내용** 노트북과 장애유형에 맞는 디지털 학습보조기구 (해당자에 한함)
- **지원대상** 일반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2021년도 3월에 입학한 등록장애 대학생
- **선발기준** 장애정도, 소득수준, 활용계획서 및 필요성 심사 기준에 의해 선발
- **모집기간** **2021.03.02.(화)~03.12.(금) 17:00**
- **접수 및 문의** 온라인 접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협력&나눔' 메뉴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www.kodaf.kr)** 에서 확인해주세요!

주최 KODAF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Korea Differently Abled Federation 후원 KB 국민은행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지원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